

《世說新語》의 품평을 통해 본 桓玄의 인물형상

김진영*

<목 차>

1. 머리말
2. 桓玄의 인물형상
 - 1) 桓玄이 처했던 당시 시대상황
 - 2) 《世說新語》에 보이는 桓玄의 인물형상
3. 맺음말

1. 머리말

《世說新語》는 전체 36권에 걸쳐 총 1130여조의 故事가 실려 있는데, 대부분 東漢 末에서 東晉 末까지 약 200년간 실존하였던 帝王, 士族, 文人, 賢者, 隱人, 和尚, 婦女子 등 총 700여 명(劉孝標의 注에 등장하는 인물을 포함하면 약 1500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신분을 보면 7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관리로 종사했던 사람들이며, 공직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名門에 속해 있으면서 은둔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의 경우 대개가 그러한 인물들의 妻나 妾인 점으로 보아 《世說新語》의 사회적 범위는 天子와 皇后 등을 포함하는 귀족상층부임을 알 수 있으며, 고사는 이들 간의 상호관계로 얽혀진 일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생활과 정신풍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될 수는 있겠으나, 반면 그 등장 인물들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등장인물들이 각각

* 인덕대학 중국어과 전임강사

의 篇目에 산재되어 있고, 인물들의 언행과 일화를 각 篇目에 분산시켜 놓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편, 正史인 《晉書》는 敘事의 주된 목적이 史의 사실의 인과관계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있다. 기사의 전개 과정으로 볼 때 敘事의 핵심이 사건에 있고, 등장하는 인물의 인품이나 形象²⁾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도입부에 초보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어 인물의 전반적인 형상(모습)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반면, 《晉書》의 편찬과정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여 底本으로 사용된 《世說新語》는 전편을 통하여 敘事의 중심이 인물형상이나 인품 등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晉書》와는 달리 인물성격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발견하고 인물에 대한 풍부하고 빼어난 예술적 표현으로 수많은 인물들이 처해있던 역사적 사회상황과 인물의 성격 등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해내고 있다.

즉, 敘事의 중심이 사건에 있는 《晉書》와는 달리 《世說新語》는 敘事의 핵심이 인물형상의 부각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橫的 연구방법에 의한 개별적 분석(예를 들어 비교, 비유 등의 표현기교)이나 典型別로 분석하는 순차적 방식이 아닌 縱的인 방법으로써 각 편목에 산재되어 있는 한 인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출, 분석하는 종합적인 인물분석을 통하여 그 인물의 전반적인 형상과 아울러 품평의 특징과 내용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³⁾

본 논문에서는 당시 東晉 정권에 반역하였던 북방의 強族 譙郡 桓氏 桓玄을 대상으로, 그 고사를 적출 집중시키는 입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桓玄의 완전한 형상을 창출해 보려고 한다. 桓玄은 《世說新語》 등장인물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東晉의 인물들 가운데 등장빈도수가 비교적 많으며(등장회수: 34, 품평회수: 6, 피품평회수: 4), 또한 부친인 桓溫이 반역을 하였음에도 滅門之禍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를 이어 반역하였던 桓玄, 그가 처해있던 당시 시대 상황이 매우 흥미롭기

2) 형상(形象)이란 心中의 관념 등을 어떤 표현수단에 의하여 具象化하는 일, 또는 形狀, 形相의 의미로 쓰여 물건이나 사람의 형체와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논자가 언급하는 형상이란 후자를 가리킨다.

3) 이러한 연구방법으로 박사학위논문 <世說新語 人物品評 研究>와 中國文化研究 제3집 <世說新語의 품평을 통해 본 王導와 謝安의 인물형상>을 통해 王導와 謝安 등 주요인물 약 15명의 인물형상을 이미 살펴보았으며, 그 나머지 인물들의 형상도 앞으로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

때문이다.

아울러 이 작업은 《世說新語》의 史料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
고⁴⁾, 《世說新語》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물들의 형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
적이다.

2. 桓玄의 인물형상

1) 桓玄이 처했던 당시 시대상황

八王之亂 이후 匈奴의 石勒은 시국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洛陽을 향해 진군,
劉曜와 힘을 합쳐 洛陽을 함락시키고 八王之亂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東海王 越
이 옹립한 懷帝를 사로잡아 사형시켰다. 懷帝의 조카인 愍帝는 洛陽 함락의 소식을
듣고 長安에서 천자에 등극하였지만, 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공격을 받고는 平
陽에 송치되어 죽음을 당했다. 이 시기 匈奴 뿐 아니라 氐, 鮮卑 등의 異民族이
도처에서 일어나 민족간의 충돌이 진행되고 천하는 형언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 결국 西晉은 무너지고 魏의 옛 도읍인 建康을 중심으로 東晉이 건국되었다.
東晉은 원래 西晉황실의 일파가 華北으로부터 關東과 關西를 거느리고 江南으로

4) 劉知幾가 《史通》 卷17 外篇 <雜說> 中에서 「근자에 宋의 臨川王 劉義慶이 《世說新語》를 저술
하였는데, 위로 兩漢과 三國으로부터 晉 中朝와 江左(東晉)의 일을 서술하고 있다. 劉峻이 주석
을 달아 그 결점을 지적하였으나 거짓된 흔적이 확연하고 어려운 논리로 수식되어 있다. 그런
데도 皇家(唐)에서 晉史를 편찬할 때 다수를 이 책에서 취하여 마침내는 劉義慶의 妄言을 採擇
하고 劉孝標의 바른 말을 위배했으니 이 책의 일로 보면 그 낮뜨거움을 어찌할 것인가.(近者宋
臨川王劉義慶著世說新語, 上叙兩漢三國及晉中朝江左事. 劉峻注釋, 摘其瑕疢, 僞跡昭然, 理難文飾, 而
皇家撰晉史, 多取此書, 遂採康王之妄言, 違孝標之正說, 以此書事, 奚其厚顏.)」 라고 한 것으로 보아
《晉書》를 편찬할 때 《世說新語》에서 다량의 내용을 인용하여 《世說新語》가 《晉書》 편
찬에 底本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진욱의 <世說新語에 대한 一考察>(서강대학교 사
학과 석사논문 1983)에 따르면 正史들 속에 40% 이상의 내용이 《世說新語》의 고사와 일치하
고 있으며, 또한 수록된 인물들이 모두 실존했다 하더라도 인물전기와 관련된 전체 고사 내용
의 사실여부를 모두 밝힐 수는 없다.

들어와 언젠가는 중원의 失地를 회복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 일시적으로 정착한 왕조이다. 이 때문에 황실과 함께 남하한 문벌귀족 및 東晉에 귀의한 문벌귀족은 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소수의 안정된 관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원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즉 자신들의 古土를 차지하고 있는 異民族을 먼저 축출하는 사람이 ‘稱帝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이러한 생각은 東晉 중·말기에 더욱 현저하게 되어 일부 야심가들은 모두 北伐로 공을 세우고 명실상부한 황제가 되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東晉의 황실과 중앙정부의 집정자들은 점차 대외 전쟁을 싫어하게 되고, 지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지하려고 하였다.

太康 3년(325) 明帝가 죽고 겨우 5세가 된 太子 衍이 제위를 계승하여 東晉의 제3대 황제인 成帝가 되었다. 成帝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庾太后(明帝 穆皇后)가 섭정을 하였는데, 中書令 庾亮은 태후의 큰 오빠로 王導와 함께 정사를 보좌하며 전권을 장악하였다. 庾亮이 죽고 庾亮의 동생 庾翼이 임종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庾爰之를 荊州刺史의 후임으로 임명해 달라는 표문을 올렸으나 조정에서 이를 거절하고는 桓溫을 東晉의 군사적 요충지인 荊州의 刺史로 임명하고 서부 諸州의 軍事를 감독하게 하여 이후부터 荊州는 譙郡 桓氏의 수중에 들어갔다. 荊州는 東晉의 영토 가운데 가장 실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야심가들에게 내란이나 대외전쟁의 근거지로 종종 이용되었다. 桓溫이 後蜀을 정벌하고 돌아온 후, 그 권위와 명성은 날로 신장되어 조정에서도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會稽王 司馬昱은 桓溫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殷浩를 등용하였으나 殷浩가 前秦 정벌을 실패하고 폐출됨으로써 内外의 大權은 모두 桓溫이 장악하였다. 조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桓溫은 결국 前秦 姚襄의 군대를 격파하고 殷浩가 성공하지 못한 洛陽 수복을 穆帝 永和 12년(356)에 이루게 된다. 그 후 北方의 前秦과 前燕이 강성해져 洛陽이 前燕에 의해 다시 점령되었다. 이에 廢帝 太和 4년(369) 桓溫은 직접 北征하여 林渚에서 前燕의 慕容暉, 慕容垂, 傅末波 등을 격파한 뒤 枋頭까지 진격했지만 군량미가 떨어져 퇴각하고 말았는데, 도중에 慕容垂의 추격을 받아 군사 3만을 잃고 대패하였다. 枋頭에서의 패전 이후 桓溫은 추락한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郗超의 계략에 따라 太和 6년(371) 廢帝(海西公 司馬奕)를 폐위시키고 司馬昱을 옹립하였으며, 簡文帝가 즉위한 咸安 元年(371) 11월에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 簡文帝的 형인 司馬晞도 폐출시켰다. 簡文帝는 허수아비와 같았으며 폐위 사건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울분을 견디지 못해 咸安 2년(372)에 죽고 말았다. 簡文帝的嫡子는 일찍 죽고 庶子인 昌明과 道子が 있었으나 모두 나이가 어려 桓溫은 簡文帝가 임종 때, 자신에게 전위하여 주기를 기대하였지만, 그에게 정치만 보좌하도록 하고 昌明을 太子로 삼아 孝武帝가 되었다. 桓溫은 크게 실망하고 결국 그의 정치적 야심은 노골적으로 九錫文⁵⁾을 요구하였으나 謝安과 王坦之 등의 비협조와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姑孰에서 病死하고 말았다.

桓溫이 죽고 謝安이 집정한 東晉은 오히려 桓溫의 庶子인 桓玄에게 南郡公을 습봉시키고, 桓溫의 동생 豁을 荊州刺史, 다른 동생 冲을 揚州刺史, 豁의 아들 石秀를 江州刺史로 각각 삼아 桓氏一門은 여전히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太元 2년(377) 桓豁이 죽자 謝安은 다시 桓冲을 荊州刺史로 삼았다. 북방의 이민족의 위협과 내부의 정치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太元 9년(384) 桓冲이 죽자 그가 갖고 있던 荊州刺史의 자리는 당시 淝水戰으로 공로가 혁혁하였던 謝玄이 계승해야 했으나 謝安은 조정의 시기를 받을까 두렵고, 한편 桓氏一門의 원망으로 위협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荊州를 여전히 桓氏의 수중에 두게 하였다⁶⁾. 그 결과 桓氏의 세력은 荊州에서 더욱 굳어졌고, 결국 桓玄이 난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桓玄은 字가 敬道이며 譙國 龍亢사람으로 원래 부친인 대사마 桓溫이 그를 매우 사랑하여 임종할 때 그를 후사로 삼으라고 명하여 7세 때 爵位를 물려받아 南郡公이 되었다. 그 영토가 荊州 경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집안의 후광으로 당시 荊州에서는 상당히 명망이 있었으며 본인도 본래 영웅심이 있었고, 또한 아래 《晉書》 卷99 <桓玄傳>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위의 견제로 중앙정계로의 진출이 여의치 못하여 때때로 변을 일으키려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5) 큰 공을 세운 權臣을 칭송하고, 아울러 그 사람에게 제위를 禪讓할 준비를 하기 위한 조서를 말한다.

6)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54-60쪽 참조.

처음에 태자세마로 제수되었으나, 당시 사람들이 그의 부친인 환온에게 모반의 행적이 있다고 하여 桓玄 형제를 억눌러 낮은 관직을 주었다.(始拜太子洗馬, 時議謂溫有不臣之跡, 故折玄兄弟而爲素官.)

淝水戰 이후 謝安이 죽고 會稽王 道子が 정치를 독점하였다. 孝武帝는 道子の 專政에 불만을 느껴 王恭과 殷仲堪으로 하여금 道子를 견제하게 하였다. 太元 21년(396)에 孝武帝가 살해되고 太子인 德宗이 계위하여 安帝가 되었다. 安帝 隆安 元年(397)에 王恭이 道子の 심복인 王國寶의 죄상을 上奏하여 이를 토벌하려고 군사를 일으키자 殷仲堪이 여기에 호응하였으며, 桓玄도 연합하였다. 道子는 王恭의 군세가 강하여 부득이 王國寶 형제를 죽이고, 아울러 자신의 죄과를 스스로 밝힘으로써 사대는 진정되었다. 隆安 2년(398)에 王恭과 殷仲堪이 譙王 司馬尙之 등을 토벌한다는 구실로 다시 군사를 일으켰으며, 殷仲堪은 楊佺期和 桓玄에게 군대를 통솔케 하여 建康을 공격하였지만 道子の 世子인 司馬元顯의 계획으로 王恭의 부장 劉牢之가 오히려 王恭을 살해하고 楊佺期和 桓玄을 官爵으로 매수했으며, 이듬해에는 殷仲堪·楊佺期和 桓玄을 이간시켰다. 桓玄은 殷仲堪과 사이가 벌어지자 마침내 殷仲堪과 楊佺期를 습격하여 살해하였다.

司馬元顯은 桓玄이 다시 난을 일으킬까 두려워 그를 토벌하려하였으나 실패하고, 東晉은 할 수 없이 桓玄을 太尉로 삼아 그가 정치의 대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元興 2년(403) 9월 桓玄은 楚王이 되어 九錫을 부여받았으며, 그해 12월에 마침내 安帝를 平固王으로 폐위시켜 尋陽으로 옮기고 스스로 제위에 올라 국호를 楚라 하였다. 그러나 元興 3년(404)에 劉裕, 劉毅 등이 대군을 이끌고 桓玄을 토벌하고자 기병하자 桓玄은 도망하다가 도중에 살해되었으며, 다음해 安帝는 建康으로 돌아와 荊州의 桓氏一門을 완전히 숙청하였다⁷⁾.

7) 앞의 책 65-67쪽 참조.

2) 《世說新語》에 보이는 桓玄의 인물형상

한편, 《晉書》에는 桓玄과 그의 부친인 桓溫의 전기가 <四夷>의 뒤 <載記>에 있다. <載記> 중의 인물들은 이민족의 首長 아니면 반역자들로서 이러한 구성은 桓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정통유가사상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世說新語》는 晉室을 마음대로 유린했던 桓玄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환남군(환현)은 사냥을 좋아하였는데, 사냥을 할 때마다 [수행하는] 거마가 매우 성대하여, 오륙십 리에 걸쳐 깃발들이 소택을 덮고 준마를 치달려 추격하는 것이 나는 듯 했으며 좌우 양익이 향하는 곳은 언덕이나 골짜기도 피하지 않았다. 혹 행렬의 대오가 가지런하지 않거나 노루나 토끼가 튀어 도망가기라도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막료 가운데 결박당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환도공은 환현의 친족으로서, 당시 적조참군이었는데 자못 직언을 과감하게 했다. [환도공이] 항상 붉은 무명 밧줄을 허리춤에 차고 있길래, 환현이 묻길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가?”라고 했더니, 대답하길 “공께서 사냥하실 때면 사람을 결박하시길 좋아하시니 [저도] 결박당할 것이 뻔한데, [그럴 경우 제] 손이 거친 밧줄을 건더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桓南郡好獵, 每田狩, 車騎甚盛, 五六十里中, 旌旗蔽隰, 騁良馬, 馳擊若飛, 雙甄所指, 不避陵壑。或行陳不整, 麇兎騰逸, 參佐無不被繫束。桓道恭, 玄之族也; 時爲賊曹參軍, 頗敢直言, 常自帶絳綿繩著腰中。玄問用此何爲? 答曰: 「公獵, 好縛人士; 會被, 手不能堪芒也。」玄自此小差。)⁸⁾

桓玄 역시 그의 부친인 桓溫처럼 사냥을 즐겨하였다. 성대하고도 엄중, 절도있는 행렬의 모습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無所不爲의 모습에서 그가 위엄 있고 영웅적 기질이 넘치는 전형적인 武人型임을 보여주고 있다.

환현이 서쪽으로 [장강을 따라] 내려가 석두로 들어갔을 때, 외부에서 아뢰길 “사마양왕이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라고 했다. 환현은 [제위 찬탈을 위한] 일의 형세가 이미 완비되었다고 판단하여, 대선 위에서 피리와 북을 함께 연주하게 하면서 곧장 높은 소리로 읊조리길 “통소 피리 소리에 여음이 남아 있는

8) 《世說新語》 規箴편 제25조.

데, 양왕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다.(桓玄西下, 入石頭, 外白: 「司馬梁王奔叛。」
玄時事形已濟, 在平乘上筋鼓並作, 直高詠云: 「『簫管有遺音, 梁王安在哉!』」)⁹⁾

제위 찬탈의 준비가 완비된桓玄은 유유자적하게 阮籍의 <詠懷詩> 82수 가운데 제31수의 두 구절을 인용해 부친인桓溫이 이루지 못한 유업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詠懷詩> 제31수는 원래 戰國시대 魏國 제후들의 방탕한 생활로 나라가 망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阮籍이 魏 明帝 집권 당시를 비꼬아 지은 시이다.桓玄이 인용한 ‘簫管有遺音, 梁王安在哉’는 제31수의 셋째와 넷째 구로 梁王은 <戰國策>에 나오는 魏嬰이지만 여기에서는桓玄이 梁王 司馬珍之를 빗대어 부르고 있다. 위의 고사를 통해 그의 높은 학식은 물론이고,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에서 호방함과 대범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桓玄의 모습은 정신적 자유와 유유자적한 삶의 태도를 추구하던 당시 玄學的 인생태도의 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환남군(환현)은 어린 아이였을 때, 여러 사촌 형제들과 함께 각자 거위를 키워서 서로 싸움을 붙였다. 남군은 [자신의] 거위가 늘 다른 사람들 것만 못했으므로 몹시 분해했다. 그래서 밤에 거위 우리 안으로 들어가 사촌 형제들의 거위를 잡아서 모두 죽여 버렸다. 날이 밝은 뒤에 집안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변괴라고 말하면서 환거기(桓沖)에게 아뢰었더니, 거기가 말하길 “괴이하게 여길 것 없다. 틀림없이 남군의 장난일 것이다”라고 했다. 물어보았더니 과연 그러했다.(桓南郡小兒時, 與諸從兄弟各養鵝共鬪. 南郡鵝每不如, 甚以爲忿; 酒夜往鵝欄間, 取諸兄弟鵝悉殺之. 既曉, 家人咸以驚駭, 云是變怪, 以白車騎. 車騎曰: 「無所致怪, 當是南郡戲耳。」問, 果如之.)¹⁰⁾

환남군(환현)은 다른 사람이 일을 시원스럽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화를 내며 말하길 “그대는 애씨 집의 배를 얻고서도 반드시 찌서 먹는가?”라고 했다.(桓南郡每見人不快, 輒嗔云: 「君得哀家梨, 當復蒸食不?」)¹¹⁾

9) 《世說新語》 豪爽篇 第13조.

10) 《世說新語》 忿狷篇 第8조.

11) 《世說新語》 輕詆篇 第33조.

이상의 두 고사에서는 桓玄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魏晉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공통적 특성은 당시 혼란한 시대상황 때문에 성격이 조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桓玄은 어려서부터 경쟁심이 강하고 셈이 많았으며, 일을 시원스럽고 신속하게 처리 못하면 화를 내는 모습에서 성격 역시 조급함을 알 수 있다.

환남군(환현)이 태자세마로 초빙되어 배를 적지에 정박하고 있을 때, 왕대(王忱)는 오석산을 복용한 뒤라 이미 약간 취해 있었지만 환남군을 만나러 갔다. 환남군이 그를 위해 술을 차렸는데, [왕대는] 차가운 술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좌우 시종들에게 자주 말하길 “술을 데워[溫] 오도록 하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환남군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이자, 왕대가 금방 떠나려 했더니 환남군은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왕대에게 말하길 “우리 [집안의] 家諱¹²를 범한 것인데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소?”라고 했다. 왕대가 감탄하며 말하길 “영보(환현)는 정말로 방달하도다!”라고 했다.(桓南郡被召作太子洗馬, 船泊荻渚; 王大服散後已小醉, 往看桓. 桓爲設酒, 不能冷飯, 頻語左右: 「令溫酒來」桓乃流涕嗚咽. 王便欲去. 桓以手巾掩淚, 因謂王曰: 「犯我家諱, 何預卿事?」王歎曰: 「靈寶故自達!」)¹³

桓溫이 庶子인 桓玄을 매우 아꼈던 것처럼 桓玄 역시 부친에 대한 孝가 지극함을 알 수 있다. 오석산을 복용하고 차가운 술을 먹을 수 없었던 王忱이 ‘술을 데워 오라고(溫酒來)’ 말할 때 ‘溫’字가 桓玄 부친의 諱를 범하였다. 즉, 避諱¹⁴를 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에는 家諱를 매우 중시하여 부친의 사

12) 父親이나 祖父의 이름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桓玄의 부친인 桓溫의 諱를 가리킨다.

13) 《世說新語》 任誕篇 제50조.

14) 말과 글에서 왕이나 높은 이의 이름 또는 이름에 사용된 글자를 피하는 것을 避諱라 한다. 이러한 경우는 雅量篇 제25조에도 보인다. 「선무(桓溫)가 간문제(司馬昱), 太宰와 함께 수레를 타고 가다가, 은밀히 사람을 시켜 수레의 앞뒤에서 북을 울리며 크게 소리지르게 하였더니, 호위대열이 놀라 소요했다. 太宰는 두려움에 떨면서 수레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간문제를 돌아보았더니 그는 태연히 편안한 모습이였다. 선무가 사람들에게 말하길 “조정에 진실로 또한 이러한 현자가 있구나!”라고 했다.(宣武與簡文·太宰共載, 密令人在輿前後鳴鼓大叫;

후에 생전의 諱를 절대 말하지 않았으며, 혹 누군가가 그 諱를 말하면 돌아가신 부친과 조부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렸다.

또한 《世說新語》任誕篇 제50조 劉孝標 注引 《晉安帝紀》와 《語林》의 기사에 따르면 桓玄은 슬픔과 기쁨의 감정이 남보다 지나쳐서 때면 기쁘거나 슬픈 감정이 들 때 마다 울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부친인 桓溫이 돌아가신 날은 지키지 않고 단지 돌아가신 시각만 지킬 정도로 放達하고 구속받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避諱를 하지 못한 王忱에게 화를 내지 않고 보여준 桓玄의 放達한 모습은 老莊思想을 바탕으로 自然과 玄理를 숭상하여 정신적으로 외물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개성을 강조했던 당시 任誕의 기풍의 영향일 것이다.

환현이 유태상(劉瑾)에게 묻길 “나는 사태부(謝安)와 비교하여 어떻소?”라고 하자, 유태상이 대답하길 “공은 높고, 태부는 깊습니다”라고 했다. [환현이] 또 말하길 “당신의 외숙인 자경(王獻之)와 비교해서는 어떻소?”라고 하자, 대답하길 “플명자, 배, 굴, 유자는 제각기 그 맛이 있습니다”라고 했다.(桓玄問劉太常曰:「我何如謝太傅?」劉答曰:「公高, 太傅深。」又曰:「何如賢舅子敬?」答曰:「櫨·梨·橘·柚, 各有其美。」)¹⁵⁾

東漢 말년 유교의 붕괴와 해체로 사람들은 엄격했던 道德禮敎의 굴레에서 벗어나 自我에 대한 부단한 추구하고 탐색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내재되었던 재능

幽簿中驚擾, 太宰惶怖求下興; 顧看簡文, 穆然清恬. 宣武語人曰:「朝廷問故復有此賢!」. 여기서 太宰는 원래 太師라고 했는데 晉 景帝 司馬師의 諱를 피하기 위해 太宰라고 한 것이다. 또한 賞譽 篇 제74조 「왕람전(王述)이 양주자사에 임명되었을 때, 주부가 [왕람전의 조부와 부친의] 諱를 묻자, 가르쳐주며 이르기를 “돌아가신 조부님과 부친께서는 함자가 천하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원근의 사람들이 [모두 잘] 알고 있으며, 부인의 諱는 밖을 나가지 않는 법이오. 그 나머지는 꺼릴 것이 없소”라고 했다.(王藍田拜揚州, 主簿請諱. 敎云:「亡祖先君, 名播海內, 遠近所知. 內諱不出於外. 餘無所諱.」)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남의 본명은 피하여 부르지 않고 대신 字로 부르는 것이 예의였으며, 특히 六朝時代에는 家諱를 중시하여 상대방 尊屬의 諱를 언급하는 것을 특히 금기시 하였다. 또한 上官이 부임하면 屬官은 반드시 請諱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했다.

15) 《世說新語》品藻篇 제87조.

역시 점차 주목을 받게 되어 魏晉 士人들의 중시를 받았다. 江左의 풍류재상으로 불리우는 謝安은 東晉의 개국공신인 琅琊 王氏와 ‘王謝’로 명칭되며 東晉 제일의 名門大族으로 尊崇받았다. 또한 그는 清新하고 玄妙한 기품의 소유자로서 문학적 자질은 물론 예술적 자질도 갖추고 있었으며, 문벌세족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뛰어난 清談 실력으로 당시 談論을 주도하였다. 王獻之는 王羲之의 일곱째 막내아들로 隸書에 뛰어났고, 부친인 王羲之의 서법을 변형시켜 今體를 만들었으며, 서체가 뛰어나고 수려하여 부친과 함께 당시 명성이 높았다.

《世說新語》에서 인물의 우열을 부각시키는 가장 두드러진 품평의 표현기법은 비교이다.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對象이나 意味를 맞세워 비교하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들 사이의 重量의 차이나 상태의 차이 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어 글의 굴곡성에 의한 유연미나 운율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¹⁶⁾ 특히 인물을 단순 우열 비교하거나 한 名士를 기준으로 하여 피품평자와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특징이나 우열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기준에 따라 피품평자를 품평하기 때문에 話者나 聽者 모두 용이하게 공통의 느낌이나 인식을 갖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世說新語》의 기초가 되었던 당시 魏晉사회는 流言이 매우 성행했던 시기로 名士 間의 뛰어난 언어감각을 통한 상호 비교의 방법이 인물품평의 중요한 방법이 되어 크게 유행하였다.¹⁷⁾ 이러한 桓玄 자신과의 상호 비교에서 인물의 우열과 품격, 인품, 사회적 지위, 도덕, 학문 등의 정도를 가리키는 流品의 高下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劉瑾은 ‘풀명자, 배, 굴, 유자’에 비유하여 桓玄을 호평하고 있다. 儒家의 경우 人物美에 대한 인식은 도덕윤리관념의 굴레에서 탈피하지 못했으며, 自然美에 대한 이해 역시 실용적이면서 공리적인 목적이 강하였다. 儒家에서 사용하는 비유라는 표현의 관점으로 보면, 自然美는 단순히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審美主體의 思想이나, 聯想, 想像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이데올로기적 성분도 지

16) 趙炳華, 徐東轍 共著 《現代文章論》(서울, 열화당, 1977) 189쪽.

17) 廖伯森 <世說新語中人物美學之研究> 臺灣東海大學 석사논문 1989, 38쪽 참조.

니고 있다.¹⁸⁾ 魏晉의 인물품평은 漢末의 政治的이면서 實用的인 성향에서 審美的, 感賞的으로 옮겨가게 되고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비유의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즉 인물의 내재된 才情의 美나 외재된 儀容風度의 美 대부분이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되고 있으며, 인물의 美와 자연경물의 美를 상호 결합하여 人格美와 自然美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인물의 성격과 개성은 매우 복잡하여 才性和 品格을 언어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무척 곤란하다. 특히 인물을 식별할 때 인간의 주관과 직감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정의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물 개개의 서로 다른 개성을 자연경물이나 사물과 상호 결합하는 방법을 통하여 원래 추상적인 인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켰다는 점에서 《世說新語》의 審美意識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환현이 한 번은 강릉성의 남루에 올라 이르길 “내가 지금 왕효백(王恭)을 위하여 뇌문을 지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한참 동안 읊조리다가 마침내 붓을 들어 단숨에 뇌문을 완성했다.(桓玄嘗登江陵城南樓。云：「我今欲爲王孝伯作誄。」因吟嘯良久，隨而下筆，一坐之間，誄以之成。)¹⁹⁾

환현이 처음 서하를 병합했을 때 荊, 江 2주와 2부 및 1국을 관할했다. 그때에 첫 눈이 내리자, 이 다섯 곳에서 모두 경하드리느라 [보낸] 다섯 통의 축하장이 동시에 도착했다. 환현은 본청에서 축하장이 도착하는 즉시 그 뒷면에 답장을 썼는데, 모두 찬연히 문장을 이루었으며 서로 엇섞이지도 않았다.(桓玄初并西夏，領荊·江二州，二府·一國。于時始雪，五處俱賀，五版並入。玄在廳事上，版至卽答；版後皆粲然成章，不相揉雜。)²⁰⁾

《世說新語》文學편 제102조 劉孝標 注引 《晉安帝紀》의 기사에서 桓玄은 문장이 훌륭하여 명성이 높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위의 두 고사에서 알 수 있듯이

18) 葉朗 著 《中國美學史大綱》(臺北 滄浪出版社, 1986) 58쪽 참조.

19) 《世說新語》文學편 제102조.

20) 《世說新語》文學편 제103조.

당시 그의 문장력과 문학적 재능은 매우 출중하여 文名을 떨쳤으며, 또한 文學편 제104조에서 학식이 높은 인물들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는 모습에서 고귀한 품격을 느낄 수 있다. 桓玄은 문장력 뿐 만 아니라 典故에도 매우 능한 높은 학식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다.

환현이 활 쏘러 나갔을 때, 유참군과 주참군이 한 조가 되어 내기를 했는데, 이기기까지 단 한 발만 남겨 놓고 있었다. 유참군이 주참군에게 말하길 “자네가 이 한 발을 명중하지 못하면 내가 자네를 때리겠네”라고 하자, 주참군이 말하길 “왜 자네의 매를 맞아야 하지?”라고 했더니, 유참군이 말하길 “伯禽 같은 귀한 분도 매맞는 걸 면치 못했는데 하물며 자네임에랴!”라고 했다. 주참군은 [이 말을 듣고도] 못마땅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이걸 보고 있던] 환현이 유백관(庾鴻)에게 말하길 “유참군은 마땅히 착실히 책을 읽어야 하고, 주참군은 또한 학문에 열중해야 하겠소”라고 했다.(桓玄出射, 有劉參軍與周參軍朋賭, 垂成, 唯少一破. 劉謂周曰: 「卿比起不破, 我當撻卿.」 周曰: 「何至受卿撻?」 劉曰: 「伯禽之貴, 尙不免撻, 而況於卿?」 周殊無忤色. 桓語庾伯鸞曰: 「劉參軍宜停讀書, 周參軍且勤學問.」²¹⁾

위의 고사에서 桓玄은 伯禽²²⁾의 典故를 잘못 사용한 유참군과, 유참군이 典故를 잘못 사용한 것조차 모르고 있는 주참군을 힐책하고 있다. 玄學이 유행했던 당시 名士들은 학문의 수양을 매우 중시하여 대부분의 經典의 내용에 해박하였으며, 談論의 자리에서 자신의 학식 정도를 과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난해한 구절들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典故의 사용은 古典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없이는 효과는 물론이고 상대의 의도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桓玄의 두 사람에 대한 지적은 그의 학식과 교양의 수준이 상당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환남군(환현)이 은형주(殷仲堪)와 함께 담론할 때 매 번 서로 논박을 주고 받았는데, 1년쯤 뒤에는 단지 한두 판에서 끝나곤 했다. 그래서 환남군이 자신의 재사가 점점 퇴보해 간다고 스스로 탄식하자, 은형주가 말하길 “그것은 바로 당신이 점점 깊이 이해해 가고 있다는 증거요”라고 했다.(桓南郡與殷荊州

21) 《世說新語》 排調편 제62조.

22) 金長煥 譯注 《世說新語》 (서울, 살림, 2000) 下卷 排調편 제62조 역주 참조.

共談，每相攻難，年餘後，但一兩番。桓自歎才思轉退。殷云：「此乃是君轉懈。」²³⁾

환남군(환현)이 은형주(은중감)와 담론하다가 함께 끝나 버린 상황을 묘사한 聯句(了語)²⁴⁾를 짓기로 했다. 고개지는 말하길 “불이 벌판을 태우고 불씨조차 남지 않은 것”이라 했고, 환남군은 말하길 “흰 천으로 관을 묶고 조기를 세우는 것”이라 했으며, 은형주는 말하길 “깊은 연못에 물고기를 놓아주고 나는 새를 풀어주는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는 위험한 상황을 묘사한 聯句(危語)²⁵⁾를 짓기로 했다. 환남군은 말하길 “창끝으로 쌀을 씻고 칼끝으로 불을 때는 것”이라 했고, 은형주는 말하길 “백 살 노인이 고목 가지에 올라가는 것”이라 했으며, 고개지는 말하길 “우물 위의 도르레에 갓난아이를 뉘어놓는 것”이라 했다. 은형주[휘허]의 한 참군이 그 자리에 있다가 말하길 “맹인이 애꾸눈 말을 타고 한밤중에 깊은 연못으로 가는 것”이라 했더니, 은형주가 말하길 “으악! 사람을 놀래 죽이는군!”라고 했다. 은중감이 애꾸눈이었기 때문이다.(桓南郡與殷荊州語次，因共作了語。顧愷之曰：「火燒平原無遺燧。」桓曰：「白布纏棺樹旒旒。」殷曰：「投魚深淵放飛鳥。」次復作危語。桓曰：「矛頭漸米劍頭炊。」殷曰：「百歲老翁攀枯枝。」顧曰：「井上轆轤臥嬰兒。」殷有一參軍在坐，云：「盲人騎瞎馬，夜半臨深池。」殷曰：「咄咄逼人！」仲堪眇目故也)²⁶⁾

도탄에 빠진 사회와 군웅들의 할거 속에서 西晉은 비록 친하를 통일하였으나 국운이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앞으로 닥칠 더욱 더 큰 혼란을 배양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어지러운 정치와 계급간의 모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질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통치집단 내부의 서로 속고 속이는 기만과 정권 쟁취를 위한 암투는 끊임 없이 있었고, 허위와 보복이 난무하는 급박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士人들은 화를 면하기 위해 山水에 은거하여 유유자적하거나 飲酒와 服藥에 도취되어 放蕩한 생활을 하는 등 처세의 방식이 크게 바뀌어 당시 淸談의 분위기가 널리 만연되었다. 西晉 시기 王衍을 대표로 하는 名士들은 淸談에 더욱 몰

23) 《世說新語》文學篇 제65조.

24) 내용상으로는 完了나 終了의 의미를 담고 있는 詩句를 돌아가면서 짓고, 형식상으로는 ‘了’字의 韻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25) 내용상으로는 위험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詩句를 돌아가면서 짓고, 형식상으로는 ‘危’字의 韻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26) 《世說新語》排調篇 제61조.

두하였을 뿐 아니라 淸談을 잘 하는가의 여부가 인물의 재능을 평가하는 판단기준이 되기도 하였으며, 簡約하고 巧妙한 언사로 관직을 얻는 등 통치계층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東晉 시기에 이르러 淸談의 기풍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는데 士族文人은 물론 승려와 제왕들까지도 淸談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시 생활의 일 부분이 되었으며, 환경과 時空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행해져 크게 유행하였다.

《世說新語》文學편 제65조 劉孝標 注引 周祗의 《隆安記》의 기사에 따르면 桓玄도 玄理를 논하는데 뛰어났으며, 義興 태수 직을 버리고 귀국한 뒤에는 늘 은형주 仲堪과 함께 종일토록 쉬지 않고 談論을 펼쳤다고 한다. 老莊思想을 바탕으로 한 淸談은 自然과 玄理를 숭상하여 정신적으로 外物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스러움을 강조한다. 위의 고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인물들의 언어를 통한 임기응변과 순간적인 기지의 표현은 淸談이 성행하던 당시의 특수한 시대정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들의 任誕의 태도와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비록 正史에서는 桓玄의 정치역정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외세 이민족의 위협과 정권쟁취를 위한 암투가 끊일 날 없고 기만과 보복이 난무하는 급박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桓玄의 모습은 영웅적 기질이 넘치는 전형적인 武人像으로 두드러진다. 그는 기풍이 豪放하고 放達하였으며, 문학적 재능과 文名 역시 높았다. 또한 높은 학식으로 당시 권력의 중심에서 名士들과의 談論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등 뛰어난 淸談실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등장인물들의 외모와 행동거지를 주로 다루고 있는 容止편에 桓玄과 관련된 고사가 없어 그의 외모를 짐작해볼 수는 없지만, 《世說新語》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들은 儒家의 관점으로 사건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 《晉書》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3. 맺음말

《世說新語》는 《隋書·經籍志》와 《舊唐書·經籍志》에 <子部小說家類>로 분류되어 있고, 魯迅 역시 魏晉南北朝 志人小說의 대표적 작품으로 꼽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소설이란 현대적 의미의 소설과 동일한 형태가 아님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각 각의 상황에서 서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성격이나 개성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어 강조하거나 성격 또는 개성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한 인물의 완전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소설과 같은 점이라 할 수 있다. 인물이 없는 소설은 없다. 이 점은 중국적 의미의 고대소설이나 현대적 의미의 소설 兩者 모두 마찬가지이다. 조각이나 회화와 같은 예술분야나 事物詩 같은 문학장르에는 인물이 없는 경우가 있으나, 서사문학작품에는 반드시 인물이 등장한다. 동물이나 무생물이 주인공인 동화에서도 그 주인공을 의인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근대 이후 대부분의 소설이 리얼리즘이고, 소설 대부분은 인문소설로서 소설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새로운 인간형의 탐색과 인간상의 창조에 있다면 인물의 설정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36권에 걸쳐 1130여조의 故事 가운데 등장인물이 帝王, 士族, 文人, 賢者, 隱人, 和尚, 婦女子 등 東漢 末에서 東晉 末까지 약 200년간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이었음을 고려해볼 때, 비록 현대적 의미의 소설과는 형태가 다르지만 인물의 형태, 유형, 성격 등을 고찰해봄으로써 소설의 구조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晉書》 臺北, 鼎文書局, 1980
 趙炳華, 徐東轍 共著 《現代文章論》 서울, 열화당, 1977
 余嘉錫 《世說新語箋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徐震堦 《世說新語校箋》 北京, 中華書局, 1984
 楊 勇 《世說新語校箋》 臺北, 正文書局, 1992
 金長煥 《世說新語》(上·中·下) 서울, 살림出版社, 1996·1997·2000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 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葉朗 著 《中國美學史大綱》 臺北, 滄浪出版社, 1986
 王能憲 《世說新語研究》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2

- 蔣凡 《世說新語研究》上海，學林出版社，1998
- 甯稼雨 《世說新語與中古文化》石家莊，河北教育出版社，1994
- 甯稼雨 〈世說新語是志人小說觀念成就的標志〉；《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1989/2
- 廖麗鳳 〈世說新語之人物群像及描寫技巧研究〉臺灣師範大學碩士論文，1989
- 葉慶炳 〈論世說新語比較人物優劣〉；《書評書目》57，臺北，1978
- 葉柏村 〈世說新語中所見魏晉清談風尚〉；《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1982/10
- 宗白華 〈論世說新語和晉人的美〉；《美學與意境》，北京，人民出版社，1987
- 朴敬姬 〈世說新語中人物品鑒之研究〉臺灣政治大學碩士論文，1982
- 廖伯森 〈世說新語中人物美學之研究〉臺灣東海大學碩士論文，1990
- 方碧玉 〈魏晉人物品評風尚初探-以世說新語為例〉臺灣國立中興大學碩士論文，1996
- 金鑣玉 〈世說新語에 대한 一考察〉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1983

《中文提要》

正史《晋书》以敘事为主旨，在於阐明史实间的前因後果以及相互淵源。从记事的展开过程来看，敘事的核心在於事件本身，在具体且透彻地呈现登场人物的人品、形象(面貌)方面，碍於《晋书》对人物的著墨有限，以至於很难全面的掌握人物的形象。然而，《晋书》的编纂过程中贡献良多，被用为参考依据的《世说新语》在全篇敘事上则集中於人物形象及人品上，有别於《晋书》的是，其在探讨人物性格上的深刻以及多变，书中对人物丰富且独到的描写功力堪称艺术，生动地刻画出历史事件以及人物的性格，跃然纸上。

论者考量《世说新语》有鑑於《晋书》以事件作为敘事中心，而将敘事核心突显於人物形象该点上，在研究方式上舍弃既存的横向个别分析(例，比较、比喻等表现技巧)或典型类别的分析方式，欲采以纵的面向筛选出散置於各篇目中的人物及其相关内容，给予综合性的人物分析。同时，尽管《世说新语》并不具现代意念的小说型态，不过其书中人物在不同状况下呈现出多样面貌，或是某些性格或是个性反覆出现在书中被加以强调及诠释，因此透过对人物透彻的重点强调，可以全盘地了解该人物的形象。本论文以谯郡桓氏桓温之庶子桓玄为探讨核心，透过此般对人物全面且多重的分析，可将书中魏晋士人当代的思想主流以及品评特徵等考察。

关键词：世说新语，桓玄，人物形象，人物品评